

여대생 44% “동성연애 가능”

24%가 “감정 경험”...혼전순결 지켜야 72%

정남구 기자

여대생들은 동성연애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으며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서울여대 학생생활연구소가 17일 재학생 4백95명을 대상으로 성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, ‘동성연애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’는 질문에 학생들은 44.1%가 ‘그럴 수 있다’는 입장을 보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‘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’(30.3%), ‘막연히 싫다’(15.8%), ‘불결하다’(7.7%) 순으로 대답했다.

또 ‘같은 여성에게 연애감정을 느낀 적이 있느냐’에 대해 ‘있다’고 응답한 여대생이 24.4%나 됐다.

여대생들은 또 남성과 여성의 순결과 관련해 각각 68.1%와 72.1%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다. 그러나 여대생들은 ‘아들보다 딸의 외박을

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가’라는 물음에 41.4%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라도 외박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는 입장이었다.

이와 함께 여대생들은 ‘매춘의 존재가 필요악인가’라는 물음에 55%가 ‘그렇다’고 답해 여대생의 절반 정도가 매춘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.

성폭력의 원인(복수응답)으로는 ‘향락적인 사회분위기’(45.7%) ‘남성들의 무절제한 충동’(40.2%) ‘대중매체’(22%) ‘여성의 심한 노출’(18.8%) 순으로 대답했다.

한편 성행동의 기준에 대해서는 ‘서로 손잡는 행동’이나 ‘팔짱이나 어깨동무’조차도 성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사람이 각각 7%, 2.2%이었으며 ‘진한 애무’부터 성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여대생이 45.4%에 달했다.